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만남

독일 수학여행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ICEM)이 주관한 '세계화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ICEM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프로그램'이 1997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열렸다.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ICEM 소속 노동조합들과 ICEM과 함께 활동하는 노동단체들이 참가한 이 프로그램에 연구소에서는 윤효원, 이현경 교육위원이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2주간의 교육훈련 활동과 1주간의 수학여행으로 이루어졌다. 교육훈련 활동은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탈리아 투린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ILO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진행되었고 수학여행은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독일 남서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회보는 지난 호에 투린센터의 교육훈련 활동을 실었고 이번 호에는 독일 수학여행을 소개한다. - 편집자

참가기(상): 티나(TINA)를 넘어 뎀바(THEMBA)로
- 투린 센터의 교육훈련 활동

참가기(하):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만남
- 독일 수학여행

푸른 나라 (Green Country)

토리노 국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남짓 걸렸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은 장관이었다. 산과 호수로 가득찬 스위스를 지나 낮은 구릉지와 평야가 펼쳐진 독일 남부를 거슬러 올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독일 수학여행의 동역인이자 안내인인 옌(Jens Jaspert)이 마중나와 있었다. 공항 밖에는 뒷꿈무늬에 짐차를 따로 매단 작은 버스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독일에 도착한 날은 일요일(9월 14일)이라 쾰른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조금 붐볐다. 고속도로 주변 풍경은 녹색 그 자체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숲은 여기 저기 흩어진 작은 마을들과 잘 어울렸다. 버스타 이동하면서 옌은 독일을 '푸른 나라'(Green Country)라고 자랑했다. 나라 곳곳에서 산과 들이 파헤쳐져 속살을 드러낸 우리나라와는 판판이었다. 2시간 정도 달린 뒤 쾰른 중심가에 있는 작은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에는 투린센터에서 만났던 독일광산화학에너지노조(이하 IGBCE) 국제국장 만프레드(Manfred Warda)와, 그와 함께 일하는 안드레아스(Andreas Wieder)가 마중나와 있었다. 그들은 옌과 함께 수학여행 내내 우리와 함께 했다.

인구 20만의 쾰른은 독일에서는 꽤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도 고층건물은 찾아

보기 힘들었고, 대신 나무와 잔디로 꾸민 정원, 웬만한 길모퉁이마다 찾아볼 수 있었다.

독일 수학여행은 IGBCE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이 함께 후원했다. 옌은 에베르트 재단에서 국제업무부를 담당하는 파트타임 직원이었다. 수학여행은 독일 노동조합의 '세계화 대응' 실태와 이 나라의 노사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투린센터 교육의 후속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짐을 정리한 뒤 우리는 IGBCE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지부장인 한스 반스너(Hans Bansen)가 초대한 저녁 식사에 참가하기 위해 호텔 근처의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양복을 밀착하게 차려입은 한스지부장은 우리들의 독일방문이 독일 사회와 노사관계를 이해하고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투린센터에서 교육받았을 때도 우리는 지역 노조간부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한적한 시골마을인 보솔라스코(Bossolasco)의 식당으로 우리를 초대한 이탈리아 노조간부들은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고 그날의 저녁식사는 떠들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 때를 머리에 떠올리며 일행 가운데 몇몇 친구들과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독일 사람들이 더 격식을 중시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식사를 마쳤다.

노동자 없는 공장과 노동없는 생산

다음 날(9월 15일) 우리는 라인브라운(Rheinbraun) 광산을 방문했다. 이 방문은 라인브라운 광산회사 종업원평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아침 우리를 도울 통역자로 케스틴(Kerstin Jackish)이 합류했다. 에베르트 재단의 엔과 케스틴은 독일 수학여행 내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통역을 맡아 주었다. 기술담당 책임자인 코르트만(Kortmann)으로부터 라인브라운 광산회사를 간단히 소개받은 후 작업 현장으로 향했다. 쾰른 근처 니더찌에르(Niederzier)에 위치한 이 광산은 면적이 20세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노천광산이다. 갱을 파서 지하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광산과는 달리 건축용 골재를 채취하듯이 지상에서 탄을 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인상적이다 못해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넓은 작업장에 노동자는 물론 불도지나 운반트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다. 다만 7층 높이의 회전 굴착기를 단 거대한 기계가 탄을 땅에서 캐내 콘베이어 벨트로 보내고 있었다. 석탄은 길이가 20킬로미터나 되는 콘베이어 벨트를 타고 근처의 화력발전소로 보내졌다. 대당 1억 2천만 달러나 하는 이 기계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인원은 오직 5명이었다. 이런 기계가 그 넓은 광산에 10여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1,400여명이 3교대로 일한다는 광산 회사의 채탄 현장에서 우리는 기계 조직수 몇 명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들은 광

산의 규모와 현대화된 시설에도 놀랐지만, 광산 현장에 노동자가 거의 없다는데 더 놀랐다. 작년에 읽었던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쓴 「노동의 종말」(The End of Labour)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노동자 없는 공장, 노동없는 생산'

광산 주변에는 인공으로 조성된듯한 숲이 많았는데 그 숲들은 개벌이 완료된 노천 광산을 최대한 자연상태로 복구해 놓은 것이라고 회사관계자가 말해주었다. 석탄을 다 캐낸 구역은 특성에 따라 샘물이 솟아나고 개울물이 흐르는 숲이나 밀과 채소를 기르는 경작지로 조성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탄가루 섞인 시커먼 폐수를 쏟아내며 흉물스럽게 버려진 우리나라의 폐광들이 생각났다. 일요일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보았던 울창한 숲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화요일(9월 16일)에 우리 일행은 레버쿠젠(Leverkusen)에 있는 바이어 그룹(Bayer Group) 본사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그룹의 종업원평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바이어는 한국에는 '바이엘 아스피린'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인데 의학, 농업, 화학, 필름 관련 회사를 거느린 기업 집단이다. 아그파 필름도 바이어의 계열사이다. 바이어 그룹은 레버쿠젠 축구팀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우리가 방문한 바이어의 레버쿠젠 공장은 종업원이 3만명으로 의약품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바이어 본사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회사답게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했다. 1960년대에 지었



IGBCE 교육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독일 IGBLE 헌정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

다는 그를 본사 앞에는 방문객을 위한 현대식 홍보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에서 전문 안내인들이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바이어 그룹의 역사, 현황, 그리고 미래 전략을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홍보관을 둘러본 뒤 우리는 소형 버스를 타고 공장을 견학했다. 1백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답게 공장에는 적벽돌로 지은 수십 년 된 건물이 많이 보였다. 회사는 포장과 적재 공정을 보여주었다. 작업현장을 볼 수 있게 대형 창문이 있는 통로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볼 수 있었다. 서너 명의 노동자가 작업하는 라인이 4개 있었다. 바이어 안내인은 지금은 15명 정도가 일하는 포장 공장에 2차세계대전 전에는 3백 명의 여성노동자가 일했다면서 회사는 자

동화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도 포장실 바로 옆 작업장에 새 라인을 끼느라 기술자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생산원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자동화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8층 높이가 된다는 거대한 창고 안에는 컴퓨터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거대한 콘테이너만 쉼없이 일꾼 노동자는 한명도 없었다. 안내인은 만약 자동화가 되지 않았다면 1톤도 넘는 생산품을 8층 높이에 있는 적재함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느냐면서 자랑스러워했다. 작업장을 나오면서 어제 방문했던 라인브라운 광산처럼 이곳에서도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법이 만들어 준 '현장조직 : 종업원평의회'

공장견학을 마친 뒤 우리는 레버쿠젠 측 구단의 홈구장으로 가 잔디구장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종업원평의회 대표인 롤프(Rolf Nietzard)와 아돌프(Adolf Busbach)로부터 바이어 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어 그룹의 노조원 비율은 레버쿠젠 지역의 경우 42%이며 독일 전체로는 60%, 유럽 차원에서는 30%로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당연히 바이어 그룹의 낮은 조직율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며 상급노조인 IGBCE는 그룹의 조합원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잇달았다. 롤프와 아돌프는 종업원평의회는 공동결정제도로 보장된 노사협의의 위한 노동자측 기구이지 노조 조직이 아니며 따라서 종업원평의회는 노조원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종업원평의회 위원의 상당수가 노조원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조와 종업원평의회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산별노조의 현장조직이 없는 관계로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인 종업원평의회를 통해 노조의 현장활동을 대신한다고 답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유럽 차원의 종업원평의회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용자와 노조원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말했다. 사업장에

노조의 현장조직이 없다는 사실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종업원평의회가 있어 노조의 현장조직이 없어도 별문제 없다는 답변은 노사간에 현장 주도권 싸움이 격심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척 흥미로운 것이었다.

간담회를 마치고 쾰른으로 돌아온 우리는 전날 방문했던 라인브라운 광산에 소속된 IGBCE 노조원들과 IGBCE 쾰른 지역 부위원장이 함께 마련한 저녁식사에 참가하기 위해 호텔 근처의 정통 독일 호프집으로 갔다. 청바지 차림의 부위원장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심각한 독일의 실업문제에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실업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보호망들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회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조차 노동자 입장보다는 사용자 입장을 편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노조의 로비사무실

수요일(9월 17일) 아침 일찍 우리들은 본(Bohn)으로 이동했다. 독일의 수도인 본은 인구가 5만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지만 행정기관과 정당, 그리고 여러나라의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독일의 행정 중심지였다. 호텔에 짐을 내려놓은 후 우리는 IGBCE 로비 사무실을 방문했다. 독일의 집권여당인 기독교민주당연합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 당사에서 가까운 로비 사무실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의견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내부시설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이 사무실에서 우리는 IGBCE 위원장이자 ICEM 위원장인 한스 버거(Hans Berger)를 만날 수 있었다.

용어설명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은 국제산업연맹들 가운데 가장 젊은 조직으로 1996년 11월 ICEF(국제화학에너지일반노동조합연맹)과 MFI(국제광산노동조합연맹)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ICEM은 전세계의 약 4억 5천만 광산 화학 공업과 철도 제지 고무 유리 세라믹 시멘트 플라스틱 산업에 종사하는 2천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한국의 ICEM 회원조직은 한국노총 소속의 화학노련, 전력노조, 고무노련, 광산노련과 민주노총 소속의 민주화학연맹 등 모두 5개이며, 소속 조합원 수는 모두 20만명이다. 지난 10월 ICE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사무총장 제정인)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짬을 내 IGBCE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로비 사무실은 1990년에 만들어 졌으며 지리적으로 의회가 가까이 있다는 잇점 때문에 본에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노조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로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정부와 사용자들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스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IGBCE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대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독일의 경험을 유념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IGBCE는 '속도를 줄이라'고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슬로우 다운(slow down)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독일식 공동결정제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이 전국중앙 차원의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간의 노동 재분배, 조기퇴직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파트타임 도입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독일 노동조합운동이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노조간의 통합을 통해 현재 60개에 이르는 노조수를 훨씬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3만명의 노조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심장부

로비 사무실에서 한스위원장과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이하 에베르트 재단) 본부를 방문했다. 재단 아태지역 책임자인 질라프(Rudiger Siefel)와 아태지역 노동조합 담당자인 슈바이스벨름(Erwin Schweissbeim)이 에베르트 재단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1925년 독일 공화국의 첫 대통령이자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를 기념해 만들어진 재단은 정부나 정당으

로부터 독립한 순수 민간단체이다. 에베르트 재단은 정치교육, 국제협력활동, 장학생제도, 각종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는 물론 제1세계(북아메리카, 서유럽,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단체이기도 하다. 에베르트 재단은 사회민주당(SPD)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이념과 활동에서 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보장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계 곳곳에서 진행해 왔다.

공역 설명

독일의 정당과 연구재단

사회민주당이 에베르트 재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독일의 다른 정당들도 자신들의 이념과 활동을 조직 국역에서 지원해 주는 재단을 갖고 있다. 연립정권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의 경우 제1차 콘라트 아우슈비 재단(KAS), 한스자이델 재단(HSS)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자유민주당(FDP)은 프리드리히 노만 재단(FNSO), 녹색당은 하인리히 볼 재단(HSB)과 연관을 맺고 있다. 에베르트 재단 서울 사무소는 계속 이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련 연구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쳐왔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디아 등 19개 나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를 마치고 재단 본부의 입구로 나오니 '사회민주주의 70년, 1925-1995'라고 쓰여진 큰 글씨가 유리벽에 붙어져 있고, 근처에 에베르트 대통령과 독일의 대표적 인 사회민주주의자 정치가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흉상이 세워져 있었다.

말로 듣고 책에서 읽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의 심장부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생활의 재충전: 휴양소와 교육센터

이날 저녁 우리들은 본 근처 쾨니그스빈터(Königswinter)에 있는 평산노동자 휴양소인 하인리히 임부쉬 하우스(Heinrich Imbusch Haus)를 찾았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휴양소에는 은퇴한 평산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김소하면서도 실용적인 휴양소는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웅장한 숲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공기도 아주 맑았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노동자들은 우리가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로 구성되었다는 소개를 듣고는 무척 반가워했다. 독일식 진수성찬이 차려진 저녁만찬이 끝날 무렵 역시 은퇴한 평산노동자인 휴양소 소장이 음식을 준비한 주방 아주머니들을 소개해 주었다. 소장은 티어키에서 이민온 주방장 아주머니가 20년동안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왔으며,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거의 모든 날을 수고한다고 소개해 주었다.

다음날인 목요일(9월 18일)에 우리들은 할테른(Haltern)에 있는 독일평산노동 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역시 웅장한 숲으로 둘러싸인 교육센터에는 여러 종류의 강의실과 숙박시설, 그리고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이 있었다. 교육센터의 소장은 티어키에

서 이민 온 광산노동자 출신이었다. 독일에는 약 2백만명의 터키 이민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독일 사회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교육센터는 1953년에 문을 열었고 1978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현대화되었다. 주마다 네 번의 교육프로그램이 개최되며 해마다 2천명의 노동자들이 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교육일정은 아침 8시 30분에 시작되어 오후 6시에 끝났다. 청소원과 조리사를 포함하여 모두 17명이 교육센터에서 일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무료로 교육받으며, 교육기간중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조치해 놓았다고 했다. 센터 운영비는 전액 노동조합에서 집행하며 정부보조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광산노조원 외에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미 1999년까지 교육일정이 잡혀있어 현실적으로 다른 노동조합원이 센터를 쓰기는 불가능하다는 소장의 설명에서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교육대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장위원(2만명), 종업원평의회 위원(1천8백명), 노조간부 및 노조직원(2천명). 교육내용은 노동운동사, 노동조합정책, 노동법, 공동결정제도, 경제학, 경영학, 능력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져 있고, 전문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만이 입학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은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행자와 교육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토론식으로

이뤄졌다.

드디어 노동자들과 만나다

이날 오후에는 교육센터에서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던 교육생들과 워크숍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모두 현장위원들이었는데 백발성성한 50대에서 2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먼저 교육생 대표가 IGBCE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IGBCE는 광산노조, 화학노조, 피혁노조가 1991년 통합해 만든 신생노조다. 물론 광산, 화학, 피혁 노조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통합 당시 광산노조원은 35만명, 화학노조원 70만명, 피혁노조원 2만명으로 통합 후 IGBCE는 노조원수 1백만명을 훨씬 넘는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노동조합이 되었다.

노조소개가 끝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통합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느냐는 우리들의 질문에 교육생들은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세계화와 경쟁심화라는 사회경제의 변화가 통합의 근본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대답해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IGBCE의 노조원이 있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4만4천여 개이며, 모든 사업장에는 노조원이 선출한 현장위원이 노조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노조 기구가 아닌 종업원평의회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현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독일 교육생들은 평의회 위



IGBCE 교육센터에서 교육선생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인의 90%가 노조원이기 때문에 노조의 중업원평의회에 대한 통제력은 막강하다면서 중업원평의회에 기반한 공동결정제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어 설명

현장위원(shop steward)

현장위원은 영어로 스프슈어더라 불리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의 사업장에 조합원 대표를 맡는다. 우리나라의 치면 산업노조의 현직대표원으로 보면 된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조합원 확보, 소속 사업장 조합원의 일상적 의사대변, 단체교섭시 소속 사업장 조합원의 의견대변, 산업노조 정책 홍보 및 선전, 파업 등 단체행동시 조합원 조직화 등이다. 현장위원은 산업노조의 권위 간주되는 달의 사업장에 고문된 중업원이지만, 작업시간 중에 교육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의 질문이 끝나고 독일 교육생들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평산노동자이자 현

장위원인 페터(Peter Israng)는 아시아의 경우 청년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물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한국 모두 '이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페터는 IGBCE의 경우 시군지 부마다 청년노동자를 위한 모임과 행사가 많으며 노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었다. 역시 평산노동자이자 그가 사는 도시의 시장인 쉰이님은 라인홀트(Reinhold Grau)는 아시아의 아동노동 실태에 대해 물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의 경우 아동노동 문제는 없었으며, 인도는 이런 지역의 경우 심각했다. 이런 질문과 지런 답변이 오가면서

워크숍이 끝날 무렵, 워크숍 시작부터 나를 뵈러 쳐다보고 있던 서른살의 귀도(Guido Freisewinkel, 그 역시 광산노동자이자 현장위원이다)가 싱긋 웃으면서 독일노동조합운동은 독일 통일이후 경제 침체, 실업증가, 지역감정 등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북한의 노동자들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비하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냐고 한국을 꼭집어 물어왔다. 나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침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평소 생각하던 것을 말했다. "우선 한국노동조합운동은 한국 정부와 자본 주도의 일방적인 자본주의적 흡수 통일은 반대한다. 급격한 통일 이전엔 남북한 모두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민주화와 동질성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한 노동자들간의 교류는 불가능하다. 한국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전무한 북한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 조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교류 대상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 문제는 한국 노동자에게 일자리 문제로 직결된다. 자본가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이것을 남한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로 인한 실업분

쟁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한국노동조합운동은 미리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민족주의 성향이 무척 강하며, 통일은 자칫 잘못하면 국수주의 편향의 민족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한국사회 민주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이 민주주의 운동인 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센터의 교육생들은 우리와 만나 토론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들의 요청으로 워크숍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지나야 끝났다. 나도 이들을 만나 대단히 기뻐했다. 왜냐하면 독일에 온 지 4일만에야 마침내 노동자들을 그것도 현장위원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로 독일 수학여행의 공식일정은 막을 내렸다.

집으로

금요일(9월 19일)에 우리들은 에베르트 재단 본부로 다시 갔다. 투린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독일 수학여행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재단 회의실에는 ICEM 사무차장 미카엘직(Peter Michaelzik)과 투린센터 노동자프로그램 책임자 카이롤라(Enrico Cairola),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집행 담당자인 국제노동사회연구소(LSI)의 데이비드(David Clement)와 에베르트 재단 아태지역국장인 질라프가

미리 와 있었다. 우리들은 간단한 평가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평가 도중에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종업원평의회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내가 속한 그룹은 종업원평의회가 노동조합 조직이 아닌 한 작업장에는 노조와 종업원평의회라는 이중 권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조의 현장장악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나는 여기서 좀더 나아가 노조가 종업원평의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공동결정제도가 아닌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간의 공동결정제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마음에 걸렸던지 미카엘직 사무차장은 종업원평의회와 공동결정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몇번이나 반복해 말해주었다.

드디어 박수와 환호 속에 평가회는 끝나고 우리들은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고 근처 호프집에서 아쉬운 작별파티를 가졌다. 유쾌한 농담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파티는 막을 내렸지만 모두다 별써 그리움을 느끼는 듯 했다.

독일 수학여행을 마치면서 나는 한국의 노사관계와 아시아 노동운동에 대해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경영참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수준으로 우리도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만물이 긍정과 부정 양면을 갖고 있는

것 처럼 독일의 종업원평의회와 공동결정제도도 양날을 가진 칼처럼 느껴졌다. 독일의 노사관계와 노동제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공부が必要하겠구나 싶었다.

아시아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가까이 사는 이웃사촌을 등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이 서유럽과 일본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진작 가까운 이웃들이나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 같다. 친하게 지냈던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친구들이 한국노동운동에 대해 아는 바에 비하면 내가 그들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수도 이름 밖에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제연대를 밀리지만 찾고 가까운 곳에서 찾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아시아를 알자, 특히 아시아 노동운동을 알자'고 다짐했다.

마지막날(9월 20일)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오는 기차칸에서 우연히 만난 직장여성인 울리케(Ulrike)는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이렇게 말해 주었다. "빛은 동방에서" 그러면서 다음말을 덧붙였다. "독일의 동쪽은 중국, 중국의 동쪽은 한국, 한국의 동쪽은 미국, 미국의 동쪽은 독일, 우리 모두는 같은 곳에 사는 한가족" ❖